

강단사색

창조적 인재를 소통하는 교육에서부터



김공수 교수 무용전공

우리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일컬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며 소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교육열기가 뜨겁기로 유명하나 격변의 역사만큼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교육의 변화를 겪었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동양문화권의 범주에서 세계문화의 범주로 변화되는 전환기를 거치며 함께 변화한 한국 교육은 빠른 시간 동안 눈부신 인재들을 배출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교육에서의 소통 부분은 교육의 현장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예술 교육의 한 장르인 발레교육의 현장에서도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자주 반복되곤 한다.

필자는 올해 제주 발레인턴십 2019에 세계적 발레리나 니나 아나니아비리리를 초청하여 발레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제주에 모여들었다.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그녀의 움직임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는데 그녀는 의외로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표현'을 강조했다. 니나 아나니아비리리는 한국 발레인들의 선천적으로 우수한 체력과 테크닉을 높게 평가했지만 수줍어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소극적인 표현력을 아쉬워했다. 현장의 모습은 정말 그랬다.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여러분은 왜 발레를 하죠?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나요?"

를 연발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필자는 이 장면을 보며 한국의 오랜 교육 풍토를 떠올렸다. 남들 앞에서 튀지 않고 가지 표현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 시절이 있었다. 풍토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기표현을 삼가는 잘못된 미덕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세계인들 속에서 극심한 교육 경쟁을 하는 현 시점에선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할 수업태도이다. 수업을 하다 보면 서양인들은 자기표현에 거침이 없고 적극적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지도 분명히 한다. 반대로 우리는 내면을 표현하는데 불분명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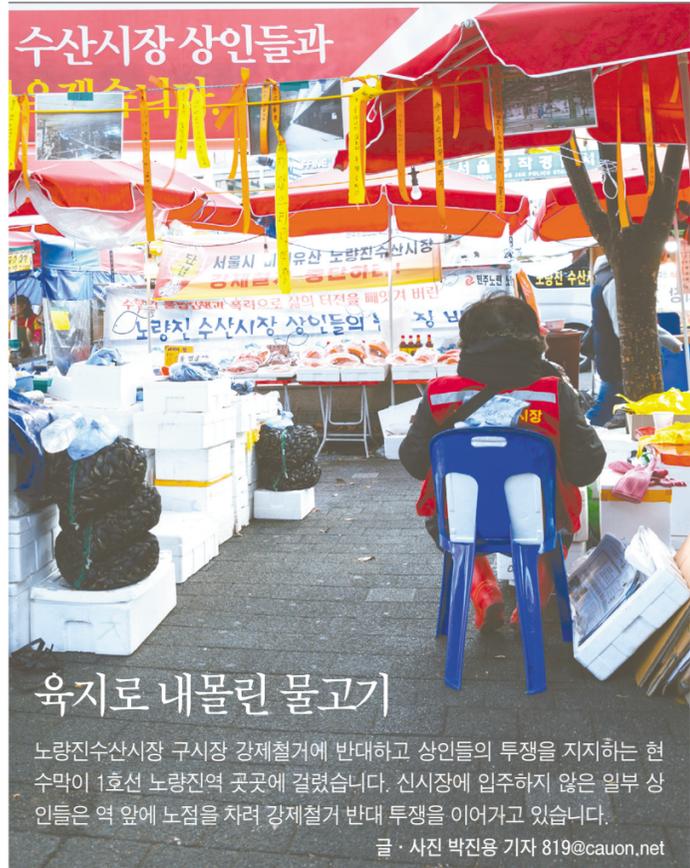
루트벤스타인 부부는 <생각의 탄생>에서 창조적인 사람들의 감정과 이성을 들여다

본 결과, 통합교육이 지향하는 여덟 가지 기본적인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발표의 중요성이었다. 학생들이 한 가지 개념을 놓고 많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표현할수록 더 나은 통찰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표로 인한 표현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이 잘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은 소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 소통이 원활하면 막힌 일도 술술 풀리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쉬운 일도 어렵게 진행된다. 통합적 사고가 가능한 창조적 인물은 소통하는 교육에서 만들어진다. 이제라도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삶을 살도록 해보자.

이주의 B컷

11월 29일 1호선 노랑진역



육지로 내몰린 물고기

노랑진수산시장 구시장 강제철거에 반대하고 상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1호선 노랑진역 곳곳에 걸렸습니다. 신시장에 입주하지 않은 일부 상인들은 역 앞에 노점을 차려 강제철거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사진 박진용 기자 819@cauon.net

의혈단상

나는 이런 중앙대학교가 좋다

계절의 변화는 달력보다 캠퍼스 곳곳에 먼저 감지된다. 푸르던 잎들은 물들어 거리에 나뒹군다. 한 학기 마무리에 학생과 교수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가을의 낭만에 물들지 못했는데 벌써 연말로 치닫는다. 기후변화로 계절의 양극화 심화를 맞출 수 있지만, 봄날의 여유와 가을의 낭만을 만끽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도 주어진 역할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고무줄이 될 수 있기에 위안이 된다.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캠퍼스는 다시 생동하고 축제와 중간고사를 치르면 절정에 다다른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준비하여 마무리하고 방학 동안 다음학기를 준비한다. 이런 대학의 생활 공식을 두 번 치르면 한 해가 지난다. 교수와 학생은 시간표에 박힌 시간을 살면서도 빈칸에는 그때마다 필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할당한다. 방학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새로운 것을 찾는 생산의 과정이다. 이런 대학의 시간이 모여 결실을 영글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한다.

빠른 성장을 거듭하던 시절 대학은 인재들을 배출하여 이미 준비된 일자리를 채웠

만 이제는 바뀌고 있다. 선진 사회일수록 일자리의 흥망은 지식과 지혜의 발전에 따라 그 주기가 빨라진다. 필요한 생산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 집약보다는 지식기반 일자리를 위해 대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눈부신 기술발전이 중독돼 편향된 인식과 이상적 노동정책에 눈을 가린 제도와 정책은 일자리 현실의 적응 속도를 넘어 과속하는 형국이다. 사람의 일자리를 컴퓨터나 로봇이 가파르게 대체하여 원치 않게 실업자가 되고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줄어든 일자리로 생활경제가 쪼그라들고, 대면 접촉의 축소로 거리의 활력이 떨어지다 보면 도시경제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바로 역습이다.

요즘 청년 창업에 관한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 물론 창업은 청년 스스로 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적절한 도움이 있다면 성공확률은 크게 높아진다. 대학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는 이런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캠퍼스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과 지역 상생을 구현하는 새로운 대학문화 형성과 지역혁신 플랫폼사업이다. 취업난에 고통받는 많은 청년에게 새로운 진로 모색 기회는 절실하다. 취업 중심의 주입 교육에서 창업 중심 창의 교육으로 선택지 확대가 필요하다.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문맹인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지적했다. 21세기가 한창인 지금 대학이 낡은 지식을 버리고 혁신한다면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원고를 마무리하는 늦은 밤, 캠퍼스 건물 창마다 환하다. 나는 이런 중앙대학교가 좋다.



배웅규 캠퍼스타운추진단장

중대신문을 읽고

중대신문의 북적이는 소리들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캠퍼스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음해를 준비하는 소리로 부산하다. 중대신문 1957호는 한 계절 잘 여문 감나무처럼 풍성한 기사들이 가득했다. 총학생회 선거, 대입논술고사 등 캠퍼스의 북적이는 소리에서 시작하여, 중대병원 앞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 동작구의 복지 이야기, 서초동 약기거리, 낙원상가를 거쳐 경기도 여주의 작은 마을까지, 세상의 소리를 골고루 담고 있었다. 교내외를 바쁘게 누비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중대신문 기자들의 열정적인 발걸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제1957호는 62대 총학생회선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회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학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후보자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 중대신문은 1면에서는 이미지를 통해 직관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4-5면에서 주요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공약을 항목별로 진단해보고, 양

캠 선거본부의 공청회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은 매우 시의적이면서 알찬 내용이었다.

흥미롭게 읽으면서도 실현가능성이 공약에서 중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행할 수 있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반드시 내걸어야 하는, 그리고 마음을 모아 함께 꿈꾸어야 하는 공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중앙대학교라는 공동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학내 언론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까? 교수들은 학생과 학교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구성원들이 우리공동체에 대해 어떤 포부를 품고 있는지, 그림도 한 번 그려볼 일이다. 커다란 밑그림을 공유하면서 후보자들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기획도 차후에 기대해본다.

한수영 교수 다빈치교양대학



소담소담을 아시나요?

중대신문의 '소담소담' 콘텐츠를 아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 필자도 중대신문 제1953호에 뉴미디어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면서 알게 됐다. 소담소담은 '소수자의 이야기를 담다'를 줄인 말로, 소수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10분 이내의 다큐멘터리다.

현재는 꾸준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큰 대목의 차별들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느끼는 작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소수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많이 있다. 지금까지 소담소담은 '의약품 점자표기', '아동학대와 친권', '부모학생과 수유실' 이렇게 3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아동학대와 친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슈화가 충분히 진행돼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추세다. 하지만 의약품 점자표기 미흡 등의 사안은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소수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처럼 어려운 주제에 접근해서 취재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소담소담의 의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담소담의 영상 업로드 주기는 약 1달이다. 최근 미디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영상 업로드 주기가 짧아진 소담소담의 업로드 주기는 1달이 보기 아무리 유익한 주제라도, 검색해서 찾아보는 고정 시청자층이 형성되기 어렵다.

학보사이다 보니 학업과 취재를 병행해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뉴미디어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으로 소담소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느끼는 불편한 시선들이 감소하고, 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배려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또한 기성 언론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분야에 관한 이야기들이 질 좋은 소담소담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에게 전달 되었으면 한다.

정준현 학생 건설환경플랜트공학전공 2



뉴미디어 핫클립



NEW MEDIA 12월 3일 제1958호 101초 뉴스

중대신문의 주요 내용을 빠르고 알기 쉽게 전달받고 싶다고요? 주요 소식을 101초로 정리해 전해드리는 '101초뉴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101초뉴스에는 새롭게 인사드리는 양캠 총학생회장 당선 소식과 경영학부 투표 둘러 논란이 담겼는데요. 두 소식의 핵심 내용을 쏙쏙 골라 담은 뉴스를 영상으로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중대신문 페이스북 페이지와 '크아우뉴스' 유튜브 계정을 찾아주세요!

조은빛 기자 goodlight@cauon.net